초저금리에도 예금·채권에 뭉칫돈 몰린다

경기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유가폭락·러시아발 위기설

중산층·서민까지 골드바 눈독

유가 폭락, 러시아발 경제위기설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골드바 등 부자들만 찾던 안전자산에 중산층과 서민까지 몰려드는가 하면 저금리로 인기를 잃었던 정기예금에 뭉칫돈을 집어넣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더 심해진 저금리 추세로 인해 '중위험·중수익' 투자가 유행이던 재테크 양상이 최근 들어 러시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금 투자가 대표적이다.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골드바 판매량은 9월 126㎏에서 10월 132㎏, 지난달 137㎏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는 하루 판매량이 지난달의 두배로 늘어 보름 새 무려 160㎏의 골드바가 팔려나갔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달 판매량은 250㎏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금거래소는 예상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바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시가 5000만원 상당인 1㎏ 골드바 판매가 주류를 이뤘으나, 지난달 중순부터는 소액 판매가 급증해 지금은 37.5g과 10g골드바 판매가 전체 판매건수의 70%를 차지한다. 37.5g 골드바의 가격은 200만원, 10g 골드바는 50만원 가량이다.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 이사는 "러시아 경제위기와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가치 보전과 환금성이 뛰어난 금 투자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은행의 상품 판매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정기금리 인하 후 예금금리가 뚝뚝 떨어지자 정기예금에서는 8월 2조4000억원, 9월 7000억원 등 두달 새 2조원을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10월에 두 번째 금리인하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에는 돈이 다시 몰리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무려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이 유입됐다.

반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여겨져 올해 들어 정기예금의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의 신규 유입액은 급격히 줄었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외환은행 등 7대 은행의 ELT·ELF 유입액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 10월에는 판매액이 7610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에는 20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올해 월평균 판매액 6000억원의 30분의 1에 그치는 수치다.

한 시중은행의 수신 담당 임원은 "두어달 전까지는 '0.1%포인트라도 수익률을 높이자'는 분위기가 지배했다면, 지금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내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펀드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하다. 위험자산인 주식형 펀드 유입액은 10월 2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5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로의 유입액은 지난달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달 들어서는 아예 주식형 펀드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유가 하락과 러시아발 경제위기설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골드바와 금펀드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골드바와 기념화폐 등 금 관련 상품.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자금융사기 소송해도 말짱 '도루묵'

금융회사 과실 입증 어렵고 본인 중과실 인정 많아

확정판결 51건 중 49건이 패소…승소는 거의 없어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은행 등 금융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패소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012년 3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그가 불러준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1300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식간에 22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면책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한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000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처방전만으로도 청구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대외 변동성 주춤 미 연준發 훈풍 호재 연말 배당투자 관심을

국내주식시장은 러시아 금융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등의 대외 악재 영향으로 1,900선을 하회 하기도 했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 정책회의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 되면서 지난주 대비 8.27P(0.44%)상승한 1,929.98P로 마감했다.

미국의 통화 정책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FOMC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 초 저금리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또한 옐런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내년 초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두차례의 통화 정책회의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나 가시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 되었음을 시사했다.

지난 10월 양적완화 종료와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은 달러화 강세 및 신흥국의 달러표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들 국가가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 이라며 석유와 가스에 집중된 경제구조 개편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일정부분 완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주간단위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며 배럴당 50달러 중반에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주식시장의 수급적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완화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재차 부각되면서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 가담과 주요 대형주의 주주 우선 정책을 강화하면서 여타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많아 보여 연말 배당투자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확장적 부양정책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내용 등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그동안 투자심리를 위축했던 요인들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이미 노출된 악재로 인하여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은 없겠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적극적인 시장 참여는 무리인 듯 싶다.

연말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관점에서 고배당 정책 수혜주 및 실적호전주에 대한 선별적 투자전략이 바람직하겠다.

김 경 신
〈우리투자증권 수완지점 부장〉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기타]					
2013타경 20777	1	나주시 동수동 341-1 3292.5㎡ 제시외 창고 등 336.21㎡,기계기구목록창조[제시외건물및제시외기계기구포함]	공장용지	1,758,204,090 1,758,204,090	일괄매각,기계기구포함[기초3전동지게차및일부소재불명된기계기구매각제외],제시외건물대부분타지상[343-2]소재,목록2,3용도: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13타경 4324		동소 341-1 나동 위험물제조소 82.5㎡ 부속건물 명표실 4.86㎡	기타		
2013타경 21077 [중복]		동소 341-1 다동 위험물목내저장소 82.5㎡	기타		
		동소 341-1 마동 1128.22㎡ 부속건물 공장[현황사무실등] 268.8㎡[물건번호1:현황조사서및감정평가서2013타경4324중복용]	공장		
2014타경 18870	2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61-1 23㎡[공유자선춘일지분3분의1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도시계획시설일부저촉]	잡종지	3,796,650 3,796,650	지분매각,매각제외타인소유목및표지석소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11046	1	광산구 하남동 292-3 545㎡[공유자전성희지분344/545전부][지분매각]	대	175,782,000 175,782,000	일괄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광산구 고봉로68번길 40-2 109.05㎡ 제시외 다용도실 27㎡[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목록1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광산구 하남동 292-5 89㎡[물건번호1:매각제외타인소유제시외건물있음]	대		
2014타경 17167 2014타경 17983 [중복]	1	북구 중흥동 358-10 200㎡	대	116,560,300 116,560,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2매각제외부속건물있음
		북구 우치로 53-1 1층81.98㎡ 2층44.62㎡ 부속건물 변소0.99㎡ 제시외 화장실 등 62㎡	단독주택		
	2	광산구 월곡동 533-2 208.4㎡	대	143,554,420 143,554,4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4매각제외부속건물있음
		광산구 신정공원로2번길 19 1층103.005㎡ 2층94.905㎡[다가구주택] 부속건물 변소1.0㎡ 제시외 다용도실 등 52.5㎡	점포및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17280	1	동구 산수동 480-15 산수빌리지 비동 4층 402호 25.6㎡	다세대	36,000,000 36,000,000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43359 2011타경 27422 [병합]	1	광산구 비아동 723 4764㎡[수목포함매각,이동가능한컨테이너1동매각제외]	전	1,915,760,000 1,915,760,000	골프장영업허가관련신고사항없음
	2	동소 723-2 2634㎡[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전	973,000,000 973,000,000	수목포함매각
	3	동소 723-3 1794㎡[현황도로]	전	4,218,490,000 4,218,490,000	일괄매각,목록5수목포함매각,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753 11571㎡[매각대상아닌건물에유지권신고있으나성립여부불명]	전		
	4	동소 735 1746㎡[수목포함매각,골프장영업허가관련신고사항없음]	전	493,950,000 493,9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광산구 비아동 756-1 4462㎡	임야	1,329,460,000 1,329,460,000	일괄매각
		동소 756-20 1251㎡	임야		
		동소 756-38 726㎡	임야		
	6	동소 756-2 5934㎡	임야	1,246,140,000 1,246,140,000	
	7	동소 756-4 12501㎡	임야	3,363,520,000 3,363,520,000	일괄매각
		동소 756-5 2123㎡	임야		
	8	동소 756-7 488㎡[현황도로]	임야	2,644,000,000 2,644,000,000	일괄매각
		동소 756-19 12976㎡	임야		
	9	동소756-11 4288㎡[현황목전,수목관정시설포함매각,골프장영업허가관련신고사항없음]	임야	1,422,350,000 1,422,350,000	일괄매각,목록18제시외연못포함,목록19골프장영업허가관련신고사항없음
		동소 756-25 1420㎡ 제시외 연못 1식	임야		
		동소 756-26 232㎡	임야		
	10	동소 756-21 4681㎡	임야	3,470,130,000 3,470,130,000	일괄매각,목록16이동가능한컨테이너2동매각제외
		동소 756-22 774㎡	임야		
		동소 756-23 5010㎡	임야		
		동소 756-28 5060㎡	임야		
	11	동소 756-27 3050㎡[현황도로]	임야	2,411,800,000 2,411,800,000	일괄매각
		동소 756-29 9160㎡	임야		
	12	동소 756-24 773㎡	임야	1,583,850,000 1,583,850,000	일괄매각
		동소 756-30 773㎡	임야		
		동소 756-31 773㎡	임야		
		동소 756-32 773㎡	임야		
		동소 756-33 773㎡	임야		
		동소 756-34 773㎡	임야		
		동소 756-35 773㎡	임야		
		동소 756-36 718㎡	임야		
		동소 756-37 516㎡	임야		
	13	동소 1-6 18298㎡	전	4,391,520,000 4,391,5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25635	1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산169 15174㎡	임야	10,773,540 10,773,540	
2014타경 8743	1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293-2 2536㎡[갑구5번공유자김병철,김정임,강순희,김성수,김성숙각지분전부][인접토지[성산리293-15등]와일단지로이용되어경계불명,경계측량요]	답	4,649,370 4,649,37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	동소 301-1 352㎡[인접토지[성산리302-1등]와일단지로이용되어경계불명,경계측량요]	대	5,632,000 5,632,000	지적도상도로소재하나현황상맹지
2014타경 9609	1	남구원산동산8-2 3128㎡[매수인에인수되는가등기및분묘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임야	65,688,000 65,688,000	현황일부묘지.2013타경24519[중복]
2014타경 13363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405 783㎡	임야	3,523,500 3,523,500	분묘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	동소 428 555㎡	전	4,551,000 4,55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산76 3967㎡	임야	11,901,000 11,901,000	분묘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014타경 18870	1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224-5 1669㎡[공유자선춘일지분10분의1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0,347,800 10,347,8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3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206-3 1841㎡[목록1과지분동일][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답	9,941,400 9,941,40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349-2 1084㎡[목록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답	5,853,600 5,853,600	지분매각,매각제외비닐하우스소재
2014타경 19521	1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233-2 1322㎡[공유자이현상지분3분의1전부][지분매각,분묘소재,분묘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전	4,274,499 4,274,499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20224	1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220-7 478㎡	답	5,736,000 5,7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20224	2	동소 220-8 781㎡	답	9,372,000 9,3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아파트]					
2014타경 16133	1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7동 14층 1404호 [월곡동,하남금호타운] 74㎡	아파트	121,000,000 121,000,000	
2014타경 17556	1	광산구 월계동 765-6 첨단남양파크 103동 3층 304호 59.82㎡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2014타경 19934	1	서구 운천로32번길 7, 506동 12층 1203호 [금호동,금호시영일반분양아파트] 59.82㎡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유찰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1. 6.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 13.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가액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결자가 돌려받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소멸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정지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광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태